



## 목회세습

### 사중복음으로 바라본 목회윤리

박창훈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역사학)

성결교회, 목회세습에서 자유로운가

1997년 강남의 C장로교회에서 퇴임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더니, 2000년에는 K감리교회, 2012년에는 W장로교회, 최근에는 M장로교회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는 일이 일어났고,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이 교회들이 대개 대형교회라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목회세습을 용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주홍글씨를 함께 달고 다녀야 하는 집단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미자립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려할 미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세인이 주목하는 대형교회들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형태와 방법이 기업의 오너(owner) 교체와 너무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난처하기만 하다.

이 글은 “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성결교회의 근본신학 주제인 사중복음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실 목회세습이라는 현상에 구태여 신학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차한 일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어떤 신학이 도대체 이 목회세습의 현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목회세습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있더라도 하다면, 그것은 아주 냉소적이고 더 나아가 독설에 가까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중복음 관점에서 본 목회세습

성결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1735년 자신이 부목사로 사역하였던 애플워스에서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목

사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맞는다. 아버지는 존 웨슬리가 자신이 힘들여 목회한 교회를 맡아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 성숙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앵웨스의 목회를 정리하고 떠나는 길을 택하였다. 존 웨슬리의 이 결정을 두고, 현재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목회세습에 대한 거부의 예로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이 떠남이 없었다면 존 웨슬리의 개인적인 신학의 도전과 발전은 없었을 것이며, 그만큼 성결운동에 대한 기여도 없었을 것은 분명하다.

#### 회개와 돌아봄의 은혜, 중생

18세기 존 웨슬리의 신학을 통해, 19세기 성결운동이 열매로 거둔 사중복음이라는 시각에서 목회세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은 중생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각자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시킨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살아온 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돌아서는 행동이다. 세습을 통한 목회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말과 행동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도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회개와는 먼 심령이다. 그 자체로 외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습의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부정직한 의도와 그에 따른 불공정한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그 세습의 과정에 이르게 된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감행한 것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고난의 길을 자신의 자녀에게 맡기는 사생결단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목회세습 과정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다짐한 순간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목회의 초심으로 계획한 일의 일부분인지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세습하는 교회들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자신의 영향력을 배제한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중생의 은혜에 일치하는 행동일 것이다.

#### 세속적 욕심과 야망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성결함

둘째는 성결이다. 목회자는 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결한 삶을 가르친다. 성결, 곧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삶이다. 대기업들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식의 매각과 인수를 통해 세습을 시도한다. 사적인 소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 세습을 하는 모습과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 가운데는 교회를 사적인 재산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은퇴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생을 걸쳐 성장시키고 지키고 세워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세속적인 인정과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결코 성결한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새벽예배를 많이 드렸

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났더라도, 그 목회자는 그 점에서 결코 성결하지 않다. 목회세습의 과정에서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사유화 행동과 구별되는 다른 점을 볼 수 없기에 결코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

목회세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일에 왜 외부인들이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 문제를 삼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고, 나쁜 교회의 법에 따라 진행한 일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는 교회가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주저앉게 된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나만 좋으면 됐지.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는 사적인 감정만 강조하는 순간, 교회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된다. 기독교는 존 웨슬리가 주장했듯이 공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종교이다. 사회적으로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없다면, 그 사회도 그러한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도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지 말아야 함을 깨닫고, 자신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될 수 없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조용한 것이 은혜로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세습과정을 바라보면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방조자가 되는 것이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신이 속한 개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한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성결교회는 성결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한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은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만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부귀, 명예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세습을 통해 은퇴 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다.

#### 교회와 사회에 상처 대신 치유를

셋째는 신유이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이다. 세습의 추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일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여기며 살고,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 그토록 좋아하고 믿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토록 사랑의 사역을 하여 목회의 모델로 여겼던 분인데, 그렇게 겸손하고 열정적이며 진실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세습으로 얼룩진 순간, 그 모든 기대와 긍지와 소망이 한순간에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악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는 말씀처럼 누군가 불편하다면,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목회자는 세습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오더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시도한 목회자들은 교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처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그 목회자는 신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의 회



복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관여하는 제도와 체제를 거룩하게 하려는 모든 행동도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인 성결과 같은 맥락이다. 잘못된 제도와 관습과 행동을 바꾸려는 말과 행동이 이 신유의 역사에 분명히 포함된다.

#### 공의롭게 판단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재림이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영역은 인간의 영과 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에 해당한다는 복음이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정화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다.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 완전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하면서 교회공동체에 대한 걱정, 교인 각자에 대한 미련, 자신의 노후에 대한 염려로 세습을 시도한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아니다. 자신이 정열을 쏟은 목회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평생의 목회에 대한 평가를 후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겠다는 자세가 재림에 마땅한 태도이다. 교회는 결국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 자녀가 교회에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그만한 역량과 사명감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교회 리더십의 안정적인 교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

신의 자녀가 목회를 잇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면, 이제까지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정하는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선한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검증받을 것을 기다리는 자세라면,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인이 세습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행동이다.

#### 사중복음, 변화의 능력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그 어느 한 항목을 생각하더라도 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형교회가 많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다행으로만 여길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거나, 교인들을 무지한 무리로 치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목회자의 통 큰 결단과 교인들의 깨어 행동하는 참여로 우리 성결교회에서부터 목회세습의 악습을 끊어내는 노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사중복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중복음은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를 넘어,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윤리적인 행동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